

# 실학 개념의 재정립 : 탐구의 학으로서의 실학

심 경 호\*

## 요 약

1980년대 한국학의 아이템은 실학이었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실학은 조선후기에 현실 대응 논리를 모색하여 현실을 변혁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던 학풍을 가리킨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젊은 학자들은 실학을 근대적 지향의 학풍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 회의의 또는 부정하고 있다. 현대의 시점에서 ‘실학’을 역사적 개념으로 설정하는 일이 무의미한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기존의 실학 연구는 우리 지성사와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더구나 실학이 근대의 새 징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흔히 실학의 학문방법은 ‘실사구시’라고 규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정이고 요청일 뿐이고, 실사구시의 학문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학의 학문방법론으로는 상대주의적 시각, 문헌학적 실증주의의 방법 수립, 고증적 사물인식방법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실학은 인식론적 관심을 확신시켰다. 실학시대에 이르면 아동에 대한 관점이 더욱 변화한다. 또 실학에 기초한 탐구의 학은 정신적 여유를 가져왔고 그것은 판타지의 감상으로 이어졌다. 생활의 이해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심 없음[disinterested]’의 인식도 불러왔다.

실학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사학과 철학에서도 드러나지만 문학에서 가장 뚜렷하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실학은 이념적으로는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세 부류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지향이 다른 여러 계보가 혼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강화학과 지식인들은 진실무위(眞實無僞)를 중시하는 심학적 실학을 추구하였다.

앞으로 실학의 현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사유 및 학문의 방법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다.

주제어 : 실학, 탐구의 학, 학문방법론, 인식론적 관심, 민족주의, 심학적 실학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1980년대 한국학의 아이템은 실학이었다. 지금 그 아이템은 충분히 매력적인가? 종래 한국학의 최전선에서 학문과 실천의 연결을 모색하던 분들과는 달리, 젊은 연구자들은 실학이란 용어를 그리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조선후기의 역사나 사상이나 시문을 다룰 때면 실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야 그 가치가 공인되듯이 여기던 시기가 있지 않았던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실학은 조선후기에 현실 대응 논리를 모색하여 현실을 변혁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던 학풍을 가리킨다. 이제까지 실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통설에 따르면, 실학은 비록 그 논리의 형식적 측면에는 종래의 성리학이나 경학의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근대적 지향과 민족적 의식을 지닌 비판적 사상운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실학을 근대적 지향의 학풍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회의하거나, 그 함의를 재규정하자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실학 개념이 제기된 것은 일제강점기이지만, 그 개념이 조명을 받은 것은 암울한 시대에 진보적 지성들이 현실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면서였다. 그 후 사회적 동인이 약화되고 지식인들의 책무의식이 빛바래면서 실학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이 비판을 받자, 그것에 기대었던 여러 논의들이 표류하기 시작한 듯하다.

일부의 젊은 학자들은 근대적 지향과 민족적 의식의 함의에 대하여 의문시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실학을 근대적 지향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역사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써 현재에는 무의미하거나 전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도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시점에서 ‘실학’을 역사적 개념으로 설정하는 일이 무의미한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기존의 실학 연구는 우리 지성사와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사실들을 밝혀내었고, 그 성과의 결과들은 현재의 젊은 연구자들도 자각하던 안 하든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실학이 근대의 새 징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이 글은 실학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학의 학문 방법론, 실학사상과 관련된 인식론적 관점, 그리고 실학 시대의 문학에서의 민족주의적 사실주의적 성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실학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문학사의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실학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실학 개념의 정의와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존의 성과에 대해서는 논리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고찰하기로 한다.

## 2. 실학의 개념에 대한 재론

흔히 실학의 학문방법은 ‘실사구시’라고 규정된다. 실사구시의 방법으로 구축된 종래의 학문 성과 속에는 문명의 전환 혹은 몰락이 운위되는 이 시점에서 민족문화가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유력한 방안이 들어 있으며, 실사구시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한국학이 과학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정이고 요청일 뿐이고, 실사구시의 학문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박지원(朴趾源)이나 정약용(丁若鏞) 등, 이 시기의 진보적 지식인의 문학이 이룩한 사실주의의 경지는 사물과 현상의 일회성을 인식하는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객체의 가변성과 주체의 가변성 사이에 우발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사물을 고정된 기성관념에 따라 보편적인 이법의 담지체로 파악하지 않고 일회적 감각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은 선형적이며 초월적인 리(理)의 불변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자연의 빛’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침을 남겼다.

생활과 사물의 일회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경험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경험을 지배하는 바탕은 감성이다. 경험을 존중하는 인식주체는, 감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소여(所與)들을 넓혀가고 그것을 다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실증적 태도를 지닌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보여준 실증적 태도가 바

로 그것이다. 그는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였기에, 소여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체의 객관 인식이 속명적으로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리는 하나이되 만물 속에 각각 달리 구현되어 있다[理一而分殊]’라는 선언적 명제의 뒤로 숨지 않았다.<sup>1)</sup>

박지원은 사물의 본질적 차이가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공간의 차이(결국 시간의 차이)에 의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 미세한 차이가 곧 사물의 공간-시간의 ‘일회성’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유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그는 분명히 사물의 ‘일회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그의 문학론과 미학론의 근본 원리로서 작용하였다. 즉, 그는 『열하일기』의 「도강록(渡江錄)」에서, 배가 강기슭을 떠난다는 사실을 통하여,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의 차이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는 철학적 문제를 연상하고는, 거기서부터 비약하여 ‘세상 사람의 윤리와 만물의 법칙이란 마치 이 물이 강기슭과 접하고 있음과 같다’고 말하였다. 사물과 사물의 경계라는 것이 지극히 미세하여, 그것은 기하학의 ‘빛이 있고 빛이 없음의 점점’, 불교의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음’이란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박지원은 사물의 본질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극히 미세한 차이에 의하여 다른 사물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사물과 사물이 공간적·시간적으로 지극히 미세한 차이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차별되는 것은 사물이 각기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공간-시간의 ‘일회성’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실학적 한문학은 성리학적 사유개념에 의해 생활과 사물을 재단하지 않고 주관의 생활과 사물을 경험하여 일회성의 진실을 포착해내며 감성을 도구·기관으로써 작용시키는 원리를 발견하였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일보 전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박지원은 종래의 사유양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존재—스스로의 행위를 선택하

1) 沈慶旻, 「연암 박지원의 논리적 사유방법과 關異端論 비판」, 『大東漢文學』 제23집 (대동한문학회, 2005.12), pp. 109-142.

는 존재 —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는 비록 모든 사물들을 가치론적으로 배열하는 인식태도를 탈각하지는 못하였지만, 선형적 가치·윤리를 기준으로 사물을 존재론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개별화되어 운동하는 현실 자체, 경험 자체를 ‘본래’라고 보았다. 이것은 당시 지성계의 정점에 위치한 사유양식이다.

박지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행동에서 의지를 지닌 인간 주체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의지를 지닌 인간 주체는 갈등하는 존재요, 스스로의 행위를 선택하는 존재이다. 기성의 관념에 따라 행동이 제약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이다. 즉,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도강록」에서, 형경(荊卿 : 荊軻)이 연나라 태자 단을 위하여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 떠나려다가 머뭇거리면서 “내가 지금 머뭇거리는 까닭은 나의 손님을 기다렸다가 함께 떠나려 함이오[僕所以留者, 待吾客與俱!]"라고 하였다고 적은 『사기』 「자객열전」에 대하여, 형경이 기다린 ‘나의 손님[吾客]’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박지원은 결사의 뜻을 품고 떠나는 형경이 역수 가에서 기다렸다는 사람이란 결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간파하였다. “형경이 기다린 사람이란 진정 이름을 지닌 어떤 실재하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누구인가? 거사를 결행하고자 의지를 발동하는 형경 그 자신, 곧 주체적 인간이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문학은 경험세계에서 일회성의 진실을 포착해내어 감성을 도구·기관으로써 작용시키는 원리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일보 전진하였다. 비록 모든 사물들을 가치론적으로 배열하는 인식태도를 탈각하지는 못하였지만, 생활과 사물의 일회성을 파악할 때 본연(本然)의 존재를 상정하지는 않았으며, 개별화되어 운동하는 현실 자체를 ‘본래’라고 보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2)</sup>

2) 심경호,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박지원의 『산해경』 東荒經 補經과 이덕무의 註에 나타난 지식론의 문제와 훈고학의 해학적 전용 방식, 그리고 척독 교환의 인간학적 의의」, 『韓國漢文學研究』 제31집(韓國漢文學會, 2003. 6), pp. 89-112.

박지원의 예는 당시의 정점(頂點)에 위치한 사유양식이지만, 다른 진보적 지성들도 그러한 사유양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였다고 생각한다.

### 3. 실학의 학문방법론

#### 1) 상대주의적 시각

주자학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심오한 시선을 제공하고 인간과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올바른 이념으로 기능하였으며, 17세기 중엽 이후로는 조선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시켜 주는 순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17세기 말 이후로 주자학은 교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역기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학문권력이 형성되어 반대당을 극한적으로 공격하는 당동벌이(黨同伐異)의 부정적 풍조를 동시에 낳은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진보적 지식인들은 주자학의 독존적 지위에 대하여 회의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상대주의적 관점은 우선, 주자학과 불교의 단절보다 연속성을 중시함으로써, 벽이단의 대상이 되어 왔던 불교를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자학의 벽이단론 자체를 회의하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말류 주자학이 지닌 비주체적 특성을 비판하는 공격적 언설이 나왔다. 처음 경향의 대표적인 예가 김만중의 『서포만필』에 나타난 불교-주자학 연속론이다.<sup>4)</sup> 두 번째의 회의주의적 태도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속에 드러나 있다. 세 번째의 경향은 이광려(李匡呂)의 진실무위론과 이면백(李勉伯)의 「가설(假說)」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이 세 경향은 시차를 두고 제출되었다.

---

3)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의 대두에 대하여」, 『민족문화』 28 (민족문화추진회, 2005.12), pp. 327-377.

4) 沈慶昊, 「金萬重 『西浦漫筆』に現れた「按脈」の思惟方法」, 『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18-19東アジア思想空間の再発見-丁茶山の時代の韓國・日本學術史-』, 2007.8.31(金)-9.1(土), 東北大學マルチメディアホール教育研究棟 6F大ホール.

그것들 사이에 계기적 관계는 없지만, 이 세 경향은 조선후기 실학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벽이단에 대한 비판은 주자학을 교조적 사상체계로 인정한 조선후기의 사상계에서 학문권력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sup>5)</sup> 곧,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황교문답(黃敎問答)」에서, 중국인 학자와 몽고인 학자의 말을 빌려, 주자학의 교조주의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박지원이 만난 중국인 학자 추사시(鄒舍是)<sup>6)</sup>는 유학의 내부에 도학이나 이학(理學)과 같은 문호를 별도로 세워서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추사시는 심지어 이단을 제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단을 배우겠다고 하였다. 유학 내부의 분기와 위선에 대하여 너더리를 쳤던 것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광생(狂生)으로 지목되었던 인물이다. 박지원은 광생인 그를 경계하면서도, 유학 내부에 문호를 별도로 세우는 것을 비판한 그의 논조에는 찬동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언설을 수록한 것이다. 위의 대화에서 박지원은 이미 이렇게 말하였다.

성문(聖門)의 설교(設敎)에는 오직 네 가지 과목을 두었습니다. 일관(一貫)의 도, 이것이 바로 이(理)이니,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학문일 것입니다. 어찌 유문(儒門)에 별도로 딱 분과를 두어 이런 두 가지 명칭을 붙이겠습니까?

- 
- 5) 송명 시대의 유불 대립에서는 여러 성리학자들이 이단설을 휘둘렀다. 주희(朱熹)는 『중용장구(中庸章句)』의 서문에서 “이단의 설이 나날이 새로 나오고 다달이 성해지고 있는데다가 노자와 불교의 무리까지 나와, 상당히 이치에 가까운 듯하면서도 참된 진리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후세의 유학자들은 이 말을 벽이단의 신조로서 신봉하였다. 하지만 주희 스스로 “원래 이것은 선학(禪學)과 아주 비슷하여, 다투는 바가 터럭 끝에 있다”고 술회하였듯이, 그는 유교와 불교를 포함하는 기반 위에 서서 어떻게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할 것인가에 부심하였다. 아라키 겐고(荒木見悟) 지음, 심경호 옮김, 『佛敎와 儒敎』(예문서원, 2000.4).
- 6) 『熱河日記』 「傾蓋錄」. “鄒舍是, 山東人也, 舉人, 與王鵠汀藏修太學中, 時皇京有重會, 藏修之士七十人, 盡赴京師而獨王鄒兩生未赴也, 爲人多慷慨不避忌諱, 形貌古怪舉止齷齪, 人皆目之以狂生, 多厭之者.”
- 7) 『열하일기』의 번역은 이가원 역주, 『열하일기』(민족문화추진회, 1977)를 위주로 하고 리상호 역, 『열하일기』(보리, 2004)를 참조하여 적절히 가감하였다.

박지원은 중국인 왕민호(王民皐)<sup>8)</sup>가 추사시의 ‘학이단(學異端)’의 말을 변론하여 ‘욕거구이(欲居九夷)’의 뜻이라고 하자 괴한(愧恨)의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괴한의 감정을 느낀 것은 과연 조선이 이단의 지역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원망해서 그랬을까, 조선에서 도학(혹은 이학)의 문호가 중국보다도 더 극성한 사실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랬을까, 속단하기 어렵다.

박지원은, 이단이 ‘교’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유교’의 ‘교’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교’라는 말 대신에 ‘오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도의 공변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옳바르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지원도, 이단의 설들을 공공연한 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유교의 도를 축소·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박지원은 유학의 본령을 제시하거나 이단의 속성을 논파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학이 다른 사상들을 ‘이단’으로서 대대(待對)시킬 경우 이단이 그 반발의 힘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그는 유학의 내부에 문호를 별도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도 경계하였다. 하나의 사상 내부에서 순수정통의 주장이 강해질수록 내부 분열이 심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박지원은 조선의 현실에서 목도해 왔던 듯하다.

## 2) 문헌학적 실증주의의 방법 수립 : ‘옛것으로 옛것을 고증하는(以古訂古)’ 방법과 본문 비판의 방법

조선후기에 우리 한학이 나름대로 문헌학적 방법을 확립한 것은 전근대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보편적 준거였던 경전을, 교조화된 의리지학(義理之學)의 틀에서 빼어내어 그것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자 시도한 모색의 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특히 정조 연간에 이르러 고거지학(考據之學)에

8) 王民皐(1728~?)은 淸나라 江蘇사람이며, 호는 鶴汀이다. 舉人으로서 과거 보기를 단념한 채 열하의 태학관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燕行時 8월 9일~14일까지 6일간 열하 태학관에서 그와 필담하였다. 「太學館筆談」, 「鶴汀筆談」, 「忘羊錄」 등에 진한다.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주자학과 한학(漢學)을 절충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약용은 ‘존고(存古)’의 작업을 통하여 옛 경전의 진의를 파악하고 현실에 유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고, 신작(申焯, 1760-1825)은 경전을 대상으로 고주(古注)를 인용하여 경전을 추구전석(逐句全釋)하였다. 그들의 경문 연구 방법은 선험적 틀로 되어버린 의리지학을 거부하고, 경전의 진의에 접근하고자 한 새로운 학문방법이다.

신작은 한당(漢唐)의 고주(古注)를 따서 모으되 기견(己見)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고주(古注)의 이동(異同)과 시비(是非)를 가려서 배열하였다.<sup>10)</sup> 모시(毛詩)를 연구하면서 제(齊)·노(魯)·한(韓)의 삼가(三家)를 겸종(兼綜)하였으며, 주(周)·진(秦) 이하 한(漢)·당(唐)까지 『시경』을 인용한 문헌을 섭렵하여 정훈(定訓)을 확정하고자 『시차고(詩次故)』를 엮었다. 현전하는 『시차고』는 본편 5책과 「시경이문(詩經異文)」 1책, 「외잡(外雜)」 1책 등 모두 22권 7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잡」은 ‘일시(逸詩)’·‘시흥체전술서(詩興替傳述敘)’·‘시차고인용서목(詩次故引用書目)’의 3부로 되어 있다. 「시경이문서(詩經異文序)」에서는 『시경』의 이문(異文)이 있게 된 이유를 고금(古今)·가차(假借)·예변(隸變)·음전(音轉)·형전(形轉)·의전(義轉)·섭오(涉誤)·사독(師讀)·속사(俗寫)·방음(方音) 등 10개의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신작은 『시차고』에서 경(經)을 경(經)의 세계를 기초로 해석하려는 전통방법의 틀을 벗어나서 사(史)·자(子)·집(集)을 가지고서 경문(經文)을 해석하였다. 주희의 주(註)를 존신하지도 않았고, 신주(新註)와 고주(古注)를 절충하려 하지도 않았다.

신작은 「고상서(古尙書)」·「상서고주(尙書古注)」·「상서이십오편 부 백

9) 심경호, 「조선후기 경학과 문헌학적 연구방법」, 『한국한문학회창립20주년기념논문집』(태학사, 1996.12), pp. 581-604.; 심경호, 「조선후기 학문연구방법론의 분화와 모순비판」, 『동양학』 29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6), pp. 37-69.; 심경호 등 대담, 「18세기 동·서양의 변화, 무엇이 달랐던가?」, 『위대한 백년 18세기-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 심경호 외 11명, 한국18세기학회 엮음, 태학사, 2007.5.21, pp. 227-361.

10) 심경호,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3).

편고(尙書二十五篇附百篇攷)」의 3부로 이루어진 『서차고』도 편찬하였다. 『상서고주』에서는 고주를 따서 모음으로써 경문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신작은 『역차고』를 편찬하였는데, 역도(易圖)를 전혀 실지 않았고 ‘대연지수(大衍之數)’의 주(注)에서도 선천도·후천도와 의 관련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역(漢易) 상수파와 의리파의 설을 선별 인용하였다.

신작의 경학연구방법은 ‘옛것으로 옛것을 고증한다(以古訂古)’로 요약된다. 그것은 고훈의 무오류성을 부정하고 타당한 고훈을 선별하는 작업이었다. 그 방법은 실증주의적 경학 연구의 선성(先聲)을 이루었다.

한편, 정약용은 정주(鄭注) 고문상서의 편린들을 기초로 고문상서의 원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여, 자신의 작업을 ‘존고(存古)’라고 불렀다. 본래 그는 「상서지원록서설(尙書知遠錄序說)」에서 상서를 상고시대 제왕의 일과 관련된 역사서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연구하는 의의는 과거사를 당대에 적용시키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상서고훈』의 편찬에서 정약용은 고이(考異)[字句異同의 검토], 고오(考誤)[趣旨異同의 검토], 고증(考證)[증거인용], 고정(考訂)[취지정정], 고변(考辨)[쟁점고찰], 논왈(論曰)·정왈(訂曰)[既說辨駁], 연의(衍義)[立論]과 같은 표출어를 사용하여 훈고와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기왕의 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따서 적어두었으며, 불합리하지만 반증이 없을 때는 결의(闕疑)로 남겨두었다. 또한 정약용은 서서(書序)의 완결(完缺)과 진위(眞僞)를 분별하고 원의를 추정하는 때에 체례연구법을 원용하였다.<sup>11)</sup> 정약용은 『상서』 전체를 체례에 따라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편명의 끝 자가 같은 것은 같은 상황, 같은 내용요건을 지닌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서서(書序)와 경문의 원 모습을 추정하였다. 또 정약용은 일자일의(一字一義)의 원리를 적용하여 서서(書序)를 해석하기도 하였

11) 이를테면 정약용은 ‘命’의 부류를 군주가 관작을 내리면서 명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다. 즉 「說命」은 傅說이 高宗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고종이 부열에게 명한 것으로, 이것은 「畢命」·「罔命」·「微子之命」·「蔡仲之命」·「文侯之命」이 모두 “上授官之命”인 사실에서 유추된다고 하였다.

다.12) 정약용은 현진본인 매색본을 폐기하지 않고 서서(書序)와 경문을 사기의 기록과 교합하면서 객관적으로 문헌비판을 행하였다.13) 정약용이 문헌비판에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문헌실증의 방법과 함께 ‘합리’에 따르는 주관적 논리조작을 증시한 결과이다. 이 주관적 논리조작 때문에 문헌자료를 존신하지 않은 면도 없지 않다.

### 3) 고증적 사물인식방법의 도입

조선후기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청초 고염무로부터 시작되어 건가학파에 이르러 극성한 고거학(考據學 : 考證學)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곧, 홍대용(洪大容)·박계가(朴齊家)·정약용(丁若鏞) 등과 김정희(金正喜)는 건가고거학(乾嘉考據學)의 학풍을 상당히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주요 저작을 직접 소개하였다.

김정희(1786-1856)의 「석노시(石筮詩)」는 청해(靑海)의 토성에서 발굴되는 석부(石斧)·석족(石鐮)에 대한 고증을 행하면서 그 학적 관심을 운문으로 읊었다.14) 이 시는 사론시(史論詩)의 성격을 지닌다. 김정희의 이 시는 유득공의 「숙신노가(肅愼弩歌)」와 같은 소재를 다루되, 유득공이 북로(北虜) 내복(來服)의 과거사실화를 안타깝게 여기는 민족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박물고증학적인 관심을 더 짙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은 결코 상지(喪志)로 빠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족사에 대한

12) 이를테면 「威有一德」과 「明居」·「無逸」·「立政」의 매색본 서는 ‘某作某’의 형식으로만 기술되어 있는데, 起語가 없는 이것들은 鄭注 고문에서는 본래 별도의 서문이 없이 앞 편의 서를 공유하던 것을 매색이 분리한 것이라고 정약용은 보았다.

13) 정약용의 방법론은 小學[필로로지]으로서의 음운학과 문자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대의 戴段二王之學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역사 사실의 고증보다는 名器論과 義理論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嘉定錢氏之學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약용은 역사의 재해석과 실천적 적용을 과제로 삼았으므로 僞孔安國傳이나 그것을 준용한 채침의 주 가운데 통설로 된 것은 그대로 두고 名器論과 義理論을 전개하였다.

14) 『완당전집』 제9권 詩 石筮詩. 이하 『완당전집』의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을 위주로 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심경호, 「秋史 金正喜와 考證學」, 『秋史研究』 5호(秋史研究會, 2007.12), pp. 257-292.

실증적 인식을 추구하였다. 김정희는 우선 고전과 박고도(博古圖) 등에서 노(弩)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여, 그 사용의 사례를 조사한 뒤, 숙신의 노(弩)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제27구 이하에서는 고증(孤證)을 증거로 강통(強通)하는데 조심하는 고증지학(考證之學)의 방법론[하나만의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고증지학의 기본 태도이다]과, 사적 증거를 토대로 상고사를 재서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드러나 있다.

이 돌도끼와 돌촉이 단연코 숙신 것이라면	此斧此鏃斷爲肅慎物
동이가 대궁에 능하던 게 더욱 상상되네	更想東夷能大弓
토성의 유적은 비록 정하기 어렵지만	土城舊蹟殊未定
이 고증(孤證: 돌도끼, 돌촉) 있으니	得此孤訂猶強通
강통(強通)할 수는 있네	
돌은 아무 말 없고 또 아무 표시 없는데	石不自言又不款
야뢰산 빛만 속절없이 안개만 자욱하다	耶賴山色空
도끼 끝에 무어라 쓴 글씨도 보기 괜찮고	長爪疾書亦不錯
긴 화살촉 끝에는 홍혈색을 띄고 있네	長平箭頭古血紅
그래도 나오니, 조천했다는 기린석이	勝似朝天麒麟石
강물 빛이 비단같이 주몽과 연관 짓는 것보다는	江光如練詭朱蒙

기린굴과 조천석은 평양의 부벽루 아래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이 굴로 들어가 땅속으로부터 조천석을 통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기린석을 두고 그 주위에 햇빛이 비치면 강빛이 비단 같다고 하여 주몽의 고사와 연결시킴은 와류(訛謬)라고 보면서, 석부·석촉의 실물은 그것밖에 남아 있지 않은 고증(孤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실물로 숙신의 토성을 고증하는 데 강통할 수 있어, 토성을 숙신 토성이라 지목하는 것은 한결 근거 있다고 하였다.

청나라 학자들이 ‘해동 제일의 통유(通儒)’라 부른 김정희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고증학의 방법을 철두철미 이용한 학문체계를 수립하지는 못했

다. 다만 그는 금석문의 연구에서 고증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 4. 실학사상과 결부된 인식론적 관심의 확산

##### 1) 아동관의 변화

전근대의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식자(識字) 교육과 예절 교육을 받았지만, 가족구조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을 특별히 만들거나 아동의 작품을 단행(單行)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대부의 문집 속에 동몽시(童蒙詩)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조숙한 천재성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이나 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겠으나, 전근대에는 어린이를 가족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생활의 반영적 측면이 강한 국문소설이 아동의 성장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유배를 가거나 혹독한 가난(家難)을 겪은 사람들 중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손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한 예가 있다. 그러다가 실학시대에 이르면 아동에 대한 관점이 더욱 변화한다.<sup>15)</sup>

강화학파의 학자인 이광사(李匡師)는 을해옥사로 부령에 유배 간 뒤에 여덟 살 딸을 위해 장문의 시를 적어, 소꿉장난하던 딸의 재롱에 몸을 맡겼던 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였다. 곧 1756년에 쓴 「이월 그믐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베개에 누워있자니 어린 딸이 곱절이나 생각나 마음을 추릴 수 없어 무릎 주위에 땀들며 재롱을 부리던 모습이 삼삼하므로 병든 몸을 간신히 일으켜 누워서 시를 초하여 인편을 기다렸다가 멀리 부치고자 한다(二月晦日 感疾伏枕 倍念幼女 情不自聊 繞膝牽裾 嬌憐在日 強病臥草 須便遠寄)」라는

15) 심경호, 「실학과 아동」, 『실학산책』 73호, (다산연구소, 2007.5.9. 인터넷게시물).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문학동네, 2008), pp. 373-378.

제목의 500자 시가 그것이다. 그는 딸이 하도 귀여워서 날이면 날마다 집안에만 있고 피치 못할 일 아니고는 나들이도 하지 않았으며, 손님이 와서 온종일 가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디질 못했다고 하였다. 딸은 “풀잎에 손톱으로 무늬를 놓아/ 비단이라 이름 지어 장사 시늬하고/ 고운 모래로 구슬을 삼고 / 색종이는 오려서 옷을 만들고 / 나무 조각으로 집을 엮어/ 바리 굽에 옹기술 가마술 앉히고/ 반드시 어린 부부가 있어/ 멀리 서서 내외를 정해두었다.” 어린이를 어린이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전근대에 어린이가 8세부터 11세 사이에 죽는 것을 하상(下殤)이라 하고 그 나이 이상의 죽음에 대해서는 복을 입어 준다. 하지만 그보다 어린 나이로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고 『의례』 「상복(喪服)」에 나와 있다. 여덟 살 이하에 죽은 아이는 조그만 널에다 넣어 장사지내고, 입다 남은 옷가지를 상자 속에 넣어 기일에 제사 지내주었으나, 묘는 제대로 쓰지 않았던 듯하다. 정약용은 「농아광지」의 글 뒤에 후지(後識)를 적어서, 같은 남인 계열의 인사였던 이기양(李基讓)의 말을 인용하여, 요절한 자녀들은 당연히 그 애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생김새 및 죽은 해의 날짜를 적어 두어 뒷날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애들이 태어난 흔적이 남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일부 지식인들이 어린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되어서, 요절한 아이들도 각별한 방식으로 애도하였다고 생각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1821년 완성)의 제4장 애민편(愛民篇)에 ‘자유(慈幼)’의 항목을 두었다. 곧 애민편은 양로(養老)·자유(慈幼)·진궁(振窮)·애상(哀喪)·관질(寬疾)·구재(救災)의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번째에 고아들을 보살피는 문제를 다룬 이 항목을 둔 것이다. 정약용은, 기민(饑民)의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양자 들이는 풍습이 정착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유랑하게 되는 현실을 가슴아파하였다.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그들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자녀들을 보전케 해야 할 것이다. 흉년 든 해에는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는데, 그 아이들을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거두어 기른 아이를 자식으로 삼거나 노비로 삼는 것을 허락하여 그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만약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유기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여 거두어 기르게 하되, 관아에서 양식을 보조해야 한다.”

또 서울 성 안의 개천에는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간간이 있었는데, 대개 사생아에 속한 아이들이 많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였다.“하늘과 땅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이치가 그 부모의 죄를 그 아이에게 미치게 하지는 않으므로, 이 역시 마땅히 거두어 길러서 백성들이 자식을 삼거나 노비로 삼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

## 2) 실학과 환타지

박지원은 시를 별로 남기지 않았으나, 『영대정잡영(映帶亭雜詠)』에 「수산해도가(搜山海圖歌)」라는 기이한 제목의 장편시를 남겼다. 박지원은 큰형 박희원(朴喜源), 종제 박수원(朴綏源) 및 이덕무와 현원(玄園)이란 동산에 노닐면서 거대한 크기의 <수산해도(搜山海圖)>를 펼쳐 놓고 감상하였다고 한다.<sup>16)</sup> 시의 서문은 이렇다. “여름날 형님을 모시고 종제 이중(履仲, 綏源)과 함께 덕보 무관(이덕무)과 약속하고는 현원에 노닐었는데, 각각 명품[翫]을 하나씩 내놓고 비교하기로 하였다. 이 그림 축의 길이는 거의 화살의 비거리 만하였다. 동산에 펼쳐두고는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경하였다(夏日奉伯氏及從弟履仲, 約德保懋官, 遊玄園, 各出一翫, 以較之. 此軸延袤, 幾竟一幘地. 張之園中, 群行而翫之.)” 원문에 완(翫)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다. 다만 오늘날 말하는 허세 부리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고동서화(古董書畫)였을 듯하다.

박지원이 감상한 <수산해도>는 이랑신(二郎神)의 요괴퇴치 전설을 모태

16) 심경호, 『판타지를 즐긴 실학자』, 『실학산책』 제44호(다산연구소, 2006, 인터넷 게시물);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문학동네, 2008), pp. 248-250.

로 설화 및 소설의 세계를 끌어들이 갖가지 형상을 그리는 <수산도(搜山圖)> 계보의 그림이던 것 같다. 이랑신은 관구이랑(灌口二郎)이라고도 하며 중국 민간에 전하는 치수의 신이다. 그 출신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진(秦)나라 촉군태수 이빙(李冰)의 둘째아들로 부친의 치수사업을 도와서 성도 남쪽에 흐르는 민강(岷江)의 교룡을 참하였다고도 하고, 수나라 거주태수 조욱(趙昱)이 교룡을 참하여 우환을 제거한 뒤 신령이 된 것이라고도 한다. 『서유기』와 『봉신연의』에는 옥황상제의 여동생이 하계에 내려가 양씨 성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여섯 괴물을 죽이고 도산(桃山)을 쫓개는 신통력을 지녀 그를 관구이랑이라 하였다고 한다. 혹은 불교에서는 사대천왕 가운데 하나인 북방의 다문천왕에게 속해 있던 비사문의 아들 독건(獨健)을 가리키며, 천병을 이끌고 당나라 명황을 구해준 공이 있다고 한다.

박지원이 본 그림은 <수산도> 계보를 이은 것에 틀림없지만 <수산해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회화는 아직 본 일이 없다. 박지원은 그 그림을 왕적(王迪)이란 사람이 그렸다고 하였다. 그림의 일부는 에로틱하기까지 하다.

한 아내는 화살에 뺨은 두 팔이 꺾여 있고,	一妻箭中兩臂伸
한 아내는 매가 채 가는데 오른쪽 눈썹이 기울어 있다.	一妻鷹攬右眉敧
한 아내는 아이를 안고 트레머리를 붙잡고 도망가는데,	一妻抱兒奉髻走
아이가 여전히 젖을 빨고 있자 아이를 꾸짖는다.	兒猶吮乳嘔其兒

박지원과 이덕무 등은 일상을 벗어난 신비의 세계로 몰입하여 즐거움을 누렸다. 박지원은 그림을 본 뒤로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나도 집에 돌아왔으나 눈앞에 삼삼하여,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생각이 그것에 머물렀다(我亦歸家眼森森, 宵不成寐念在茲).” 박지원은 이렇게 판타지를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열하에서 환희(幻戲)를 감상하고 또 『열하일기』에 환희의 공연목록을 적어둘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실학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방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학자들이 직접, 간접으로 현실에 참여할 것을 표방하고 실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목석같이 고정관념으로 사회참여를 한 것이라

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실학자들은 권력화된 학문과 일체의 거짓 학문에 대해 비판하면서 진실한 ‘탐구의 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탐구의 학은 정신의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정신적 여유가 판타지의 감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 3) 실학과 사심 없음의 정신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다산초당에 화단을 만들고 「다산화사(茶山花史)」 20수의 연작을 남겼다. 정약용은 국화, 수선화 같이 분에 담은 꽃도 좋아하였지만, 붉은 복사꽃, 배꽃, 연꽃, 목근화(무궁화) 같이 자연 속에 피어난 꽃을 더 좋아하였다.<sup>17)</sup> 굴원 서편의 다산 초당은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시내 물이 둘러나간 곳에 있었다. 초당의 정면에는 작은 못이 있었으며, 그 안에 석가산으로 세 봉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화를 적절히 심어두고 섬들을 두르자, 철따라 피는 꽃이 아롱다롱 지고 (핑) 무늬를 물속에 비추었다. 화단에는 매화, 복숭아꽃, 학정홍(鶴頂紅), 모란꽃, 홍약(작약), 수구(수국), 해류(석류), 치자, 부양(자미 곧 백일홍), 월계화, 해바라기, 국화, 자려(자초), 호장(천남성), 포도를 심었다.

정약용은 별도로 미나리 밭도 가꾸었다. “금년에야 처음으로 미나리 심는 법을 배워, 성 안에 가 채소 사는 돈이 들지 않는다네(今年始學蒔芹法, 不費城中買菜錢).”라고 하였으니, 생활의 방편 때문에 미나리를 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나리를 ‘화사’의 군방보(群芳譜)에 넣은 것을 두고, 정약용이 완물상지(玩物喪志)에 빠지지 않고 실생활을 중시하였다고 야단스럽게 풀이할 필요가 없다. 생활의 방편인 미나리의 꽃까지도 군방(꽃 화훼들)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다산에게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다산의 「화사」 연작시는 화훼의 하나하나에 정신의 지향을 가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정약용은 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

17) 심경호, 「꽃을 사랑하는 마음」, 『실학연구』 116호(다산연구소, 2008.3.26, 인터넷게시물).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문학동네, 2008), pp. 272-276.

다. 정약용은 모란꽃을 보호하려고 창 앞에 대바자를 쳐 놓았다. 또한 작약 싹이 죽순처럼 뾰족하고 경옥처럼 붉게 돋아나자, 행여 아이들이 장난으로 꺾기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였다.

가 돋은 작약 싹이 기세 좋게 솟아나	紅藥新芽太怒生
죽순보다 뾰족하고 경옥처럼 붉구나.	尖於竹筍赤如瓊
산 영감이 그 싹을 지키기로 다짐해서	山翁自守安萌戒
아이들 화단에 못 가도록 막는다오	不放兒孫傍塢行

꽃을 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생활의 이해관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정신 지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킬 수 없는 사람은 학문을 하여도 제대로 된 결과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활의 이해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음이야말로 사심이 없음 [disinterested]이다. 진정한 현실 참여는 그런 사심 없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 5. 실학시대의 문학에 부각된 민족주의적 성향과 사실주의적 성향

실학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사학과 칠학에서도 드러나지만 문학에서 가장 뚜렷하다. 한국문학은 매 시기마다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갖가지 모색을 하였으나, 실학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러한 모색을 충분히 개화·결실할 수 있었다. 조선시·조선풍의 중시는 그러한 사조를 반영한다. 곧 조선후기의 문학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출, 국경의식의 고양, 민족역사에 대한 관심 표명, 자국 언어 및 국문문학에 대한 관심 표명, 독자적인 문명의식, 민족 정서의 재발견과 소외된 민족성원에 대한 재인식, 국토산하의 재발견 등을 주제로 삼아, 기존의 문학형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문학형식을 창출하였다. 그렇기에 문학을 통해서 실학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18)</sup>

한국문학은 매 시기마다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갖가지 모색을 하였으나, 기법과 주제의 면에서 전통의 구속성이 강하고 중국 문학사조의 영향력도 컸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모색이 충분히 개화·결실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 조선시·조선풍의 중시는 그러한 사조를 반영한다. 곧 조선후기의 문학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출, 국경의식의 고양, 민족역사에 대한 관심 표명, 자국 언어 및 국문문학에 대한 관심 표명, 독자적인 문명의식, 민족 정서의 재발견과 소외된 민족성원에 대한 재인식, 국토산하의 재발견 등을 주제로 삼아, 기존의 문학형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문학형식을 창출하였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한국문학은 사실주의의 특성을 드러내었다고 개괄된다. 그러나 그 사실주의의 특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국면이 거론된다. 우선 두드러진 특색은 전문하거나 전문으로 듣는 현실이 깊고 넓어져 서사 세계가 확대되었다는 점과 작품창작에서 현상 자체를 가능한 한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올바른가, 심안(心眼)으로 재해석하여 묘사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게 되었다.

이익(李瀾)은 사물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꾸밈없이 묘사해 내어야 문학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박지원은 형식적 ‘진신사영(傳神寫影)’을 부정하였는데, ‘진(眞)’이란 생활이나 사물의 외부적 묘사가 흡사함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논리적 개괄이나 기성의 관념으로 재단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 발전 법칙을 따르기에 다른 것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일회성’의 진실을 뜻한다. 정약용도 일련의 사회사에서 형식적 사실묘사를 넘어서서, 사실의 의미와 이면을 해부하여 보았다.

한편,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한문학은 참 경험을 매우 중시하였다. 객주의 형상을 한문단편 속에 그리는가 하면, 농촌에도 화폐경제가 발달하

18) 심경호,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한국한문학에 나타난 실학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실학연구』 제5호(한국실학학회, 2003. 6), pp. 247-291.

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 사실을 문학의 소재로 삼았다. 일부 지식인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경제에 의하여 맺어지는 인간관계인 시교(市交)가 기존의 인간관계를 대체하거나 해체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문학은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개인의 진실정감을 담은 문학의 두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덕무는 삶과 욕망의 관계에 주목하는 한편, 한문 소설의 형상화 방법, 문체에 있어서는 현상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통속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통속이란 결국 절제되지 않은 정감의 토로를 담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옥은 ‘남녀의 정’이야말로 ‘진실의 대명사’처럼 주목하였다. 이옥은 남녀의 정(情), 나아가 인간의 정감에 주목하고 그것을 문학 속에 담았다. 물론 그가 남녀의 진정을 강조한 것은 예교의 허위성을 공격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정감 자체를 해부한 것 자체도 이 시기의 문학의 향배를 가늠케 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옥은 여성의 심리를 분석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남녀의 만남을 전면에서 그리되 이면에는 세상과의 만남을 우의하였지만, 여성의 생활상과 심리를 묘사해낸 솜씨는 비교적 해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6. 실학시대의 계파와 실학적 인간학의 파장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실학은 이념적으로는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세 부류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지향이 다른 여러 계파가 혼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강화학과 지식인들은 진실무위(眞實無僞)를 중시하는 심학적 실학을 추구하였다.<sup>19)</sup> 이광사(李匡師)는 나의 뜻[意]과 관계된 사(事)를 중시하였으며, 인간 감정의 솔직한 발로를 존중하였다. 그는 자연과 우주에 대

19) 沈慶昊, 「江華學派的僞學批判」, 『韓國江華陽明學研究論集』(臺灣大學出版中心, 2005. 9), pp. 405-434 ; 「江華學派의 僞學批判와 知的摸索」, 『陽明學』 第19號(二松學舍大學東아시아學術總合研究所 陽明學研究部, 2007.3), pp. 17-42.

한 주희의 생각을 비판하여 박학의 학풍을 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기 검증’을 바탕으로 학문과 문학을 하였다. 그 아들 이긍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에서 사평(史評)을 배제함으로써 사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실을 집적한 사료 편찬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방법은 강화학파의 박학자(樸學者) 신작(申緯)이 경학을 연구하면서 기견(己見)을 배제하고 고주(古注)를 집성한 방법과 통한다. 이긍익의 아우 이영익(李令翊)은 특정 경학론이나 이기론에 편향하지 않고 주체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물음을 던졌다. 그 사촌 이충익(李忠翊)은 불교와 노자에까지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정제두의 손자사위 신대우(申大羽)는 주로 인간의 생활상에 중시하여 ‘전내실기 지학(專內實己之學)’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이긍익은 당쟁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려실기술』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필치로 사실을 기술하고 일체의 사평(史評)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귀나 눈에 익은 이야기들을 모아 분류대로 편집한 것이요, 하나도 나의 사견으로 논평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자기의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사실을 집적함으로써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사료 편찬 방법은, 같은 강화학파의 신작이 경학 연구에서 기견(己見)을 배제한 방법과 통한다. 이긍익은 필주(筆誅)를 가한다는 명목으로 사견, 당론을 개입시키는 당시의 역사기록 방식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니, 역사서술에서 허가(虛假)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역사서술 태도는 종질 이면백(李勉伯)의 『감서(愍書)』와 『해동돈사(海東惇史)』(단, 둘 다 전하지 않음), 종손 이시원(李是遠)의 『국조문헌(國朝文獻)』(전하지 않음), 종현손 이건창(李建昌)의 『당의통략(黨議通略)』으로 이어졌다.

이긍익의 아우 이영익(李令翊, 1738-1780)은 특정 경학론이나 이기론에 찬동하지 않고 주체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물음을 던졌다. 양명학을 수용하되 그 부고염선(浮高染禪)의 폐단을 배격하고, 주자나 왕양명의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곧바로 성인을 추구하는 무리이고자 했다.

이충익은 아예 유학의 틀에서 벗어나 불교와 노자에까지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는 허학(虛學)을 배격하고 실학에 나아갈 것을 목표로 삼아

서, 「가설(假說)」 상·하편과 「군자지과설(君子之過說)」을 지었다. 이충익은 주자학 말류가 자사심(自私心)에서 다른 학설이나 사상을 배격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옛글을 빌려오고 옛 철인의 자취에 비기지 않음이 없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하였다.

그 뒤 정동유(鄭東愈, 1744-1808)는 “요사이 사람은 오성(五性) 이외에 따로 봉당이라는 한 개의 인륜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개탄하고, 구양수의 「봉당론」과 소식의 「속봉당론」을 이어서 「속속봉당론(續續朋黨論)」을 지었다. 한편, 정제두의 손자사위 신대우(申大羽, 1735-1809)는 ‘배움에 충과 신을 위주로 하고 공부에서 계신(戒愼)을 전공하는[學主忠信, 工專戒愼]’ ‘내면을 오로지 하고 자기를 실되게 하는 학문[專內實己之學]’을 추구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장구(章句)에 치중하지 않고 언의(言議)를 숭상하지도 않으면서 위기지학에 힘쓴 인물들의 전형을 기록문자에서 거론하였다.

신대우의 둘째 아들 신작은 앞서 보았듯이 조선 박학(樸學)의 종(宗)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시차고』·『역차고』·『서차고』와 『춘추좌전례(春秋左傳例)』(전하지 않음)를 저술하였고 『의례(儀禮)』에도 밝혔다. 또한 박세당(朴世堂) 및 강화학파의 노자 연구 전통을 이어 『노지지략(老子旨略)』을 집필하였다. ‘옛것을 가지고 옛것을 바로잡는[以古訂古]’ 경학 연구방법은 무근의 입론을 배격하는 태도와 닮아 있다. 신작에 이르러 강화학파는 고증지학(考證之學) 즉 한학(漢學)을 흡수하였다. 그것은 곧 주자학 중심의 경학설을 해체하고 경의 본지에 육박하려는 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학시대의 문화적 분위기는 각 신분계층의 자기정체성 인식과 문학적 실천을 촉발하였다. 중인과 서얼들은 현실 변역의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 드물었으나, 그들의 문학에서도 ‘실학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정체성의 인식과 신분계층의 사회적 질곡에 대한 비판의식을 시문 속에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중인들은 단합해서 통정 운동을 벌이는 한편, 문학활동을 통해 유대의식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외형상 보수적 문학론을 개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문학 활동이 지닌 의의를 당시의 보편적 언어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해동유주』 이후 『소대풍요』(1737), 『풍요속선』(1797), 『풍요삼선』(1857) 등의 독자적 시집을 간행하였고, 『호산외사(壺山外史)』,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희조일사(熙朝軼事)』 등 중인 일화집을 편찬하였다. 중인층은 계급적 시각과 정치적 견해를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중인층이 신분적 자각을 통해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한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얼층도 이 시기에 이르러 신분의 질곡을 구체적으로 시문 속에 담아내고, 시사 활동 등을 통하여 독자적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여성 학자들도 성리학의 궁극적 이상을 추구하였다. 즉 임윤지당(任允摯堂)[任聖周의 누이]과 강정일당(姜靜一堂)은 사계(沙溪)—우암(尤菴)—수암(遂庵)—도암(陶庵)으로 내려오는 기호 서인의 성리학을 계승하되, 윤지당은 “나는 비록 부인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가 차이가 없다”라 하고, 정일당은 “부인들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임윤지당은 “내가 비록 부녀자이기는 하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사이에 다름이 없다. 비록 안연이 배운 것을 능히 따라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인을 사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라고 밝혔다. 성리학의 논리를 궁극에까지 추급한 자리에서 임윤지당과 강정의당의 ‘옛 사람과 같아지길 기대한다[庶期古人同]’는 선언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그것은 이미 속류 성리학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실학의 역사적 평가에 관한 향후의 과제

실학은 교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연의 빛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방법론으로서 확립한 탐구의 학이다. 이 실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바로 실학이 추구하였던 탐구의 학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사보고서 원본들 가운데 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가 1931년 6월 16일에 제출한 『낙

랑군강역고』(일본어)가 들어 있다.<sup>20)</sup> 제1장은 ‘낙랑군이 만주에 있었다는 설과 조선에 있었다는 설’인데, 그 본문에 이런 언급이 있었다. “내선(內鮮) 학자에게는 조선에 있었다는 설이 가장 많은데, 유명한 조선의 고증가 정약용은 고조선과 지나(支那)와의 경계인 패수(溟水)를 현재의 압록강이라고 보아, 고조선의 전 영역을 반도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그 옛 땅에 두어졌던 낙랑군도 역시 반도 안에서 추정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역사지리』의 저자인 츠다 소기치(津田左右吉)박사도 완전히 같은 설이다.” 아마도 오히려 낙랑군이 만주에 있었다는 설에 좌단함으로써, 당시 만주에 괴뢰국을 두려고 하였던 일체의 책략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정약용은 통사류의 역사서를 저술하지 않았으나, 『아방강역고』에서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역사 발전을 파악하는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었다. 정약용은 조선 8도가 본래 기자조선의 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해배된 뒤인 순조 20년(경진, 1820) 3월의 춘천 여행과 순조 23년(1823) 4월의 2차 여행 때 각각 『천우기행권』 시집과 『산행일기』를 남겨, 춘천이 낙랑의 남부도위가 있던 곳이고, 고조선의 한가운대를 흘렀다는 열수는 곧 한강이라고 단정하였다.<sup>21)</sup>

정약용이 기자조선설을 비판 없이 따른 것은 실은 기자조선 이래 조선 8도가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로서 줄곧 우리의 강역이었음을 입증하려는 민족주의적 역사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혹은 북벌론이 지닌 허구적 측면을 비판한 까닭에, 만주를 고대사의 무대로 보는 역사 인식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고조선 및 낙랑의 상고사에 깊은 관심을 보인 그 사상적인 배경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다산의 문

20) 심경호, 「리치몬드 도서관에서 다산학을 생각하다」, 『실학산책』 제65호(다산연구소, 2007.3.14, 인터넷 게시물).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문학동네, 2008), pp. 77-80.

21)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다산의 역사관에 대하여는 한영우(韓永愚)님의 「다산 정약용의 역사관」(한우근 외,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과 조성을님의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정약용의 역사인식」(『규장각』 15, 서울대 규장각, 1992)에서 논급한 바 있고, 다산의 춘천 답사의 사실을 추적한 것으로는 본인의 『다산과 춘천』(강원대출판부, 1995)이 있다.

현학적 고증 방식은 현재의 관점에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상고사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과 문헌의 재검토가 가능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보면, 다산의 고증은 문헌자료집성의 문헌 실증주의가 지닌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다산학은 다산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산의 학술을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방법이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

또한 다산학은 일제의 어용학자가 다산의 주체적 역사관을 악랄하게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츠다 소기치라는 일본 국수주의 학자는 다산의 저술을 읽고서 다산의 설을 거꾸로 이용하였는지 모른다. 실학자의 저술이 일제 관변학자들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인 학자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연구하는 일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탐구의 학으로서의 실학은 여러 연원에서 기원하였다. 김만중의 ‘안맥(按脈)의 학’은 그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학의 현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사유 및 학문의 방법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正喜 (2003), 『阮堂全集』(영인표점본), 한국문집총간 301, 민족문화추진회.  
 金正喜 (1986-1995), 『(국역)완당전집』, 민족문화추진회.  
 朴趾源 (1977), 『(국역)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朴趾源 著 · 리상호 譯 (2004), 『열하일기』, 보리.

### 2. 참고논저

- 沈慶昊 (1995), 『다산과 춘천』, 강원대출판부.

- \_\_\_\_\_, 「조선후기 경학과 문헌학적 연구방법」, 『한국한문학회창립20주년기념 논문집』, 태학사 (1996.12), pp. 581-604.
- \_\_\_\_\_, 「조선후기 학문연구방법론의 분화와 毛奇齡 비판」, 『동양학』 2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9.6), pp. 37-69.
- \_\_\_\_\_,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박지원의 『산해경』 東荒經 補經과 이덕무의 注에 나타난 지식론의 문제와 훈고학의 해석적 전용 방식, 그리고 척독 교환의 인간학적 의의」, 『韓國漢文學研究』 제31집, 韓國漢文學會(2003. 6), pp. 89-112.
- \_\_\_\_\_,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한국한문학에 나타난 실학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韓國實學研究』 제5호, 韓國實學學會(2003.6), pp. 247-291.
- \_\_\_\_\_, 「江華學派的僞學批判」, 『韓國江華陽明學研究論集』, 臺灣大學出版中心(2005.9), pp. 405-434 ;
- \_\_\_\_\_, 「연암 박지원의 논리적 사유방법과 關異端論 비판」, 『大東漢文學』 제23집, 대동한문학회(2005.12), pp. 109-142.
- \_\_\_\_\_, 「조선후기 지성사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의 대두에 대하여」, 『민족문화』 28, 민족문화추진회(2005.12), pp. 327-377.
- \_\_\_\_\_, 「江華學派的僞學批判と知的摸索」, 『陽明學』第19號, 二松學舍大學東アジア學術總合研究所 陽明學研究部(2007.3), pp. 17-42.
- \_\_\_\_\_,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3).
- \_\_\_\_\_, 「金萬重『西浦漫筆』に現れた「按脈」の思惟方法」, 『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18-19東アジア思想空間の再發見-丁茶山の時代の韓國・日本學術史-』, 2007.8.31(金)-9.1(土), 東北大學マルチメディアホール教育研究棟 6F大ホール.
- \_\_\_\_\_, 「秋史 金正喜와 考證學」, 『秋史研究』 5호, 秋史研究會(2007.12), pp. 257-292.
- \_\_\_\_\_, 「리치몬드 도서관에서 다산학을 생각하다」, 『실학산책』 제65호, 다산연구소(2007.3.14).(인터넷 게시물).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 문학동네(2008), pp. 77-80.

- \_\_\_\_\_, 「판타지를 즐긴 실학자」, 『실학산책』 제44호, 다산연구소(2006), (인터넷  
게시물) ;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 문학동네(2008), pp. 248- 250.
- \_\_\_\_\_, 「실학과 아동」, 『실학산책』 제73호, 다산연구소(2007.5.9), (인터넷게시  
물).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 문학동네(2008), pp. 373-378.
- \_\_\_\_\_, 「꽃을 사랑하는 마음」, 『실학연구』 제116호, 다산연구소(2008.3.26),  
(인터넷게시물).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 문학동네  
(2008), pp. 272-276.
- 심경호 등 대담, 「18세기 동·서양의 변화, 무엇이 달랐던가?」, 『위대한 백년  
18세기-동서문화 비교 살롱토크』, 심경호 외 11명, 한국18세기학회 역  
음, 태학사(2007.5.21), pp. 227-361.
- 심경호 옮김, 아라키 겐고(荒木見悟) 지음, 『佛敎와 儒敎』, 예문서원(2000.4).  
조성을 (1992),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정약용의 역사인식」, 『규장각』 15, 서  
울대 규장각.
- 한영우 (1985), 「다산 정약용의 역사관」,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논문 투고일: 2008. 06. 20, 심사 완료일: 2008. 12. 5

---

ABSTR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Koreanology was Silhak(實學, practical science) in 1980's. Silhak of historical concept mean the academic traditions that provide practical logic and device against social irregularities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朝鮮) dynasty.

Recently, some persons of the young school are skeptical about Silhak as modern academic traditions. But I think that Silhak of historical concept is not meaningless in the present age. Established studies Study on Silhak have demonstrated very important facts of our history of intelligence. In addition, we can't deny that Silhak have a new sign of the modern age.

We have usually defined methodology of Silhak as Positivistic method(實事求是, One of new scientific methods that it should keep only the facts). But this definition is only proclamatory definition or request, and this concept doesn't mean that elucidate methodology of Silhak as positivistic method in a concrete way.

I think that we can mention recognition of relativism, philological positivism and historical research for understanding of thing as methodology of Silhak.

Epistemology based on Silhak was diffused throughout intelligentsia. A new angle on the children appeared in the age of Silhak. And Silhak was extended to appreciation of fantasy, because Silhak as questing method had mental adaptability. This occasioned an intellectual to disinterest themselves from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e.

Nationalistic inclination of Silhak had a strong influence on literature. Silhak of historical concept are ideologically divided into three branches : Political statecraft(經世致用), Economic enrichment(利用厚生, to make good use of things and make people live in abundance) and Positivistic method. But actually, various genealogy existed. For example, the school of Ganghwa(江華學派, the Wang Yangming school in Joseon) attached importance to truth, and pursued Silhak as moral culture.

From now on, We have to reconfirm contemporary value and advance speculation and methodology of Silhak.

**Key words:** Silhak(實學, practical science), Silhak as Questing method, Methodology, Epistemology based on Silhak, Nationalism, Silhak as moral culture

---